

## 공홀사역-성경적 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시작된다. 창세기의 기록은 출애굽 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집트에서 유랑하던 유목민인 히브리인들이 재산과 노동력을 파라오로부터 착취를 당한다. 억압과 착취는 히브리인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고통을 하늘에 호소하였고,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출2:23).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홀히 여기심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외침은 하늘에 향해 외치는 압박받는 자의 외침, 고난과 사회불의에 허덕이는 노예들의 외침이었다.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가난한 자, 이방인,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성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방신학적 동기가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법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정신으로 자리 잡으며, 이런 출애굽의 정신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관통하는 테마가 된다.

이 해방신학적인 정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처음으로 맺은 시내산 계약에서부터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여(출 22: 24) 가난한 자가 파산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담보를 잡을 때도 생활필수품일 경우 필요한 때는 돌려주어야 한다(출22:25-26). 이방인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출22:20),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실 것이라고 하신다(출22:21-23). 그리고 히브리인이 노예가 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시고 있다(출21:2-4/21:7-11).

이 시내산 계약(출20:22/23:19)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이집트로부터 해방에서 시작된 해방의 역사를 완성해나가는 것이다. 이 역사는 예배 안에서 계승되고 현실화되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전될 때마다 계속 실현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정성과 배려를 기울일 때 “출애굽”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다.

시내산 계약 이후 이스라엘에서 왕정이 확립되면서 나타나는 율법이 신명기 법전이다(신 16-26). 왕정이 발달함에 따라서 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간 시기로 호화주택(호8:14), 방탕한 축제(사5:11-12), 화려하고 사치한 의복(사3:16-24), 농지수용(사5:8) 등등의 사회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 법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며(신15:4), 십일조의 의미가 가난자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시고 계신다(신14:28-29/ 26:12-15). 돈을 꾸어줄 때 생활필수품을 담보로 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신 24:6/ 24:10-13)과 히브리인의 노예화를 방지하기 위한 말씀(신 23:16-17), 임금의 착취를 금하시는 말씀(신24:14-15), 동족끼리 고리대금업을 금지하시는

말씀(신23:20-21)들로서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을 들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다시 이집트 땅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신다(신15:12-15). 출애굽의 해방신학적인 테마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삶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의식적, 윤리적, 사회적 순결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레위기로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려는 노력으로 안식일과 할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율법은 제사, 행동, 음식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순결성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율법에서 요구하는 분배정의 원칙이 위반되었을 경우에 단호히 그 정의가 회복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희년에 대한 규정과 되사기의 권리에 대한 말씀(레25) 그리고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신27:17/잠22:28)등은 출애굽의 공동체에서 빈곤화의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이다. 그리고 이방인을 종으로 부릴 수가 있으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심하게 부리는 것을 금하는 말씀(레25:46)에서 출애굽의 해방정신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사회윤리의 본질은 각 율법의 세칙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신학적인 틀인 “출애굽의 체험”에 있다. 기독교의 사회윤리의 근간도 구약시대의 율법규정을 적용하되 그 신학적인 뼈대인 “출애굽의 해방신학적인 정신”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고난의 신학적인 틀”에로 우리를 인도해간다.

예언자들은 그들의 하나님 체험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로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진정한 길은 고통속에서 허덕이던 이스라엘 민중의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들의 윤리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미6:8)으로 윤리의 원천까지 파고든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예언하였다.

그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비판한 것은 독초처럼 이스라엘의 전 사회에 퍼져 이스라엘을 파괴하던 불신앙의 풍조였다. 이 불신앙은 상부상조, 부의 공평한 분배와 형제애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기주의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상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해체시키는 요소가 된다. 예언자의 지적은 분배정의와 선행을 무시하는 것은 식인종의 처사와 같다는 것이다(미3:1-3). 이런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왕인 미련한 목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꾸지람을 선언하는 사람들이다(렘23:1-2/ 사56:9-12). 출애굽의 만민평등의 사상과 군주정체의 충돌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또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공범을 흐르는 물처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지는 않고 형식적인 제사만을 중요시하는 위선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 없다. 이것이 사회적인 불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 사회적인 불의와 이스라엘의 멸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지적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낙관적 비판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새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다(겔36:21-38). 사회적인 불의의 직접적인 결과로 다가온 이스라엘의 참극 너머로 다가오는 여명을 본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가까운 장래에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하고 전능한 왕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척도는 무엇보다 약하고 가난하며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주린 자에게 음식을 나누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사58:6-7)

지혜서들에서는 가난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더 단순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시39:6-7/ 49:11/ 잠23:4-5/ 아8:6-7). 가난을 인과응보론적으로 보는 부분(잠6:10-11/ 6:6-9/ 13:18/ 시112:1-3)도 있으나 가난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태도이다(잠30:7-9/ 전4:13).

그리고 지혜서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말씀이 많이 있다(시35:10/ 37:14).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시편을 읽을 때 시인들의 애절한 기도와 분도 뒤에 가난한 자들의 정의를 위한 사회적인 투쟁이 숨어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하늘의 가나안으로 향하여 영적인 여행을 시작한다. 이런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오는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취임설교를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시작하신다. 즉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논민 자에게 보게 함을 놀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눅4:16-19). 해방신학적인 출애굽의 모티브가 그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즉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눅6:20-21). 또 그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명령을 하시고 계신다(막10:21).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주린 사람에게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을 한 것을 자기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다(마25:37-46).

그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사역의 대상으로 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는 한번 사회의 중심세력에 가까이 간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지역적으로 그리고 사귀는 사람도 주변적인 그리고 버림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이었다. 그의 서민적인 체취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는 스스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눅7:34).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차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명확해지지는 말씀이다.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한다(약1:27). 그리고 2,000년의 교회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고 그의 인성이 약화될 때는 언제나 교회는 타락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예외 없이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교회사에서 배우는 교훈이다.

한국교회도 이 공황사역이 제일 취약하고 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부분이라고 본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길도 프로그램이나 설교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회와 역사를 섬기는 데에 있을 것이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민중들은 교회에서 안식을 발견하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